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증견관리자회의(SLM) 결과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OECD와 WB 공동회의 및 OECD DAC 증견관리자 회의(SLM)가 2005.12.6~7간 당지 IEA 회의장에서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I. 핵심 내용

- 최근 OECD 회원국들이 천명한 ODA 확대계획에 의하면, 현재 약 800억불 규모에서 2010년까지 1,300억불 규모로 확대될 예정인 바, 국가별 및 분야별 원조 배분, 수원국의 능력 배양 및 주인 의식 강화 등 원조효과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Untying 이슈와 관련 회원국들은 2001년 Untying 권고문상의 threshold(70만 SDR, 기술협력의 경우 13만 SDR)의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식량원조 및 기술협력에 대한 Untying 및 Untied 원조 적용대상 국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저한 견해차를 드러냄.
- DAC 수원국 리스트 개정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비아를 포함하는 단일 수원국 리스트로 일단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덴마크가 이들 개도국이 추가되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2006년 고위급회의(HLM)시 정치적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06.4.4~6간 개최될 HLM에서는 ODA 수원대상국 리스트를 비롯, 취약국가 이슈,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 언타이드 원조의 적용대상 국가(country coverage)등을 논의하기로 함.
- 우리 대표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우리 정부의 ODA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바, Manning 의장 및 다수 회원국들은 우리 정부의 ODA 규모 확대 계획 및 DAC 가입 검토 계획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II. 관찰 및 평가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터키, 체코, 폴란드 등 여타 Non-DAC 국가들 또한 DAC 가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향후 DAC 사무국은 Non-DAC 국가들의 DAC 가입 문제를 포함,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DAC 가입준비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DAC 가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Non-DAC 국가인 체코가 2006년중 만불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DAC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6년중 5만불 범위내에서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함.
- Untying와 관련, untying에 대한 예외(식량 원조, 기술협력등) 및 적용대상 국가 범위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바, 언타이드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01년 언타이드 권고문의 수준보다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ODA의 untying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우리 정부의 “ODA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ODA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키는 차원에서 2006.4.4~6간 개최될

고위급회의(HLM) 및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 시 ODA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III. 의제별 주요 논의내용

1. 취약국가 이슈

- OECD DAC 회원국 공동의 관심사항인 취약국가 이슈에 대해 DAC 사무국은 취약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국가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진행 중임을 소개하면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 흐름을 모니터링을 제안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약국가 즉 “aid orphans”에 대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원 방식(methodology)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취약국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Non-DAC 공여국에 의한 원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네덜란드는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은 외교, 국방, 재정 등 범정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그러나 미국 및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 등은 취약국가에 대한 개입(engagement)은 위험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취약국가를 선별하여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

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DAC에서의 취약국가에 대한 논의에 지지를 표하며 취약국가에 대한 정보가 Non-DAC 회원국들에게도 자유롭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부분의 취약국가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09년까지 ODA/GNI 비율을 0.1%로 확대하여 약 10억불의 ODA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밝힘.
 - 아울러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잠정적으로 2010년 DAC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DAC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언급함.
- 취약국가에 대한 논의는 추후 DAC 사무국이 진행하고 있는 시범 프로젝트의 구체 결과등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함.

2. DAC 수원국 리스트 개정

- DAC 수원국 리스트(DCD/DAC(2005)58) 개정은 원안대로 합의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비아의 리스트 포함에 대해 덴마크가 여전히 이견을 표명함에 따라 2006년 4월에 개최될 고위급 회의(HLM)에서 ODA 수원 자격(eligibility)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기로 함.

3. Untying

-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1년 Untying 권고문의 threshold 폐지 필요성, 현지 조달 확대 및 기술협

력(technical cooperation)의 Untying 방안을 추후 검토해 나가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함.

- 그러나 벨기에 및 프랑스 등은 식량 원조에 대해 Untying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일본은 Untying하는 소규모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보고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현지 조달의 경우 원조의 효율성 측면을 비교하여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일본은 또한 기술협력을 Untying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바, 자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협력분야의 ODA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아울러 수원국 입장에서도 Untied 원조만을 선호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ODA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Untying 보다 논의가 시급한 산적한 이슈들이 있음을 지적함.
- 이태리 또한 Untying 확대보다는 Untied 원조의 질적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Non-DAC 국가들 및 여타 ODA stakeholder들과도 Untying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함.
- 현재 최빈개도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Untied 원조 적용대상 국가 확대와 관련, 대다수의 국가들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HLM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아울러, 기술협력에 대해 DAC 작업반(Working Party)에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함.

4. 2007~8년 작업우선순위 및 자발적 기여금

- 대부분의 국가들이 DAC 사무국이 제안한 향후 2년간의 작업우선순위(빈곤퇴치, 능력 배양, 국가 버넌스 증진, 개발재원 확보 및 효과적 사용, 재난 및 분쟁 등 위기 대처)에 공감을 표했으며, 사무국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자발적 기여금 제공 의사를 표명함.
- 일본은 빈곤퇴치를 위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도 중요함을 언급함.

5. HLM 의제

- 2006.4.4~6간 개최될 고위급(HLM) 회의시 1)취약 국가 이슈, 2)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 3) ODA 수원자격, 4)언타이드 원조의 적용대상 국가(country coverage)등을 논의하기로 함.
 - 추가적으로 제기된 인도주의 원조 이슈,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 ODA 확대 등은 추후 HLM 의제 회담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6.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

- HLM에 이어 개최될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가지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다소 민감한 두 가지 이슈이므로 정치적인 선언을 채택하는 수준의 회의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몇몇 국가들은 동 회의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IV. Non-DAC 회원국과의 대화 및 DAC-WB 공동회의

상기 SLM 회의 개최에 앞서 12.6(화) OECD 사무국에서 Non-DAC 회원국과의 대화 및 ODA 확대에 관한 DAC-World Bank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Non-DAC 회원국과의 대화

- 체크는 소규모 원조이나 앞으로 Untying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6년에 만불을 자발적 기여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터키는 체크 및 슬로바키아 등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스탄불 소재 OECD 센터에서 ODA 관련 세미나 개최등의 의사를 표명함.
-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 ODA/GNI 대비 ODA규모를 0.1%로 확대하고 잠정적으로 2010년경 DAC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DAC 가입준비 작업반(Task Force) 설치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
 - 이에 대해 폴란드도 2010년경 DAC 가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체크 등 또한 DAC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

2. DAC와 World Bank와의 공동 회의

- 2004~2010년까지 전세계 ODA가 약 500억불 가량 증액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러한 원조의 확

대와 더불어 원조의 배분, 투명성(transparency), 주인의식(ownership)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또한 증액된 ODA의 50% 이상이 MDG 달성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실질적인 ODA 확대를 위해서는 공약한 만큼의 ODA가 제공되는 지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증액된 ODA를 배분을 원조공여국회의(CG : WB주관)와 원탁회의(RT : UNDP주관) 등을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의 원활한 의사소통(interface)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안됨.

□ ODA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public support)가 중요한 바,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확대된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짐.

- 미국은 특히 원조에 있어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을 능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함.

□ 일본, 독일 등은 전체적인 ODA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나, 수원국마다 서로 다른 의회 절차 및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inclusive)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 ODA 확대 계획이 규범적(normative)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